

총장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전쟁터

매장 70% 이상 차지...임대료 20~30% 올라 영세자영업자 몰락

광주 총장로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면서 개인 자영업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임대료를 상승시켜 지역 자영업자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총장로상가변영회와 상인들에 따르면 2~3년 사이에 총장로 일대 점포의 절반 가량이 유명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바뀌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전체 매장의 70%에 달했지

만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70% 이상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장로 일대에 더 바다샵·에뛰드·토니모리·스킨푸드 등 유명 브랜드 화장품 매장만 20곳에 달하며, 스타벅스·엔젤리너스·투스플래이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13곳에 이른다.

특히 유니클로·자라 등 글로벌 브랜드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매장이 늘면서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총장로 2가에 있는 한 공인중개소는 “총장로 일대 임대료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집계되었던 3~4년 전에 비해 평균 20~30% 정도 올랐다”며 “상권도 좁고 점포수도 많지 않은데 1~2년 사이에 글로벌 브랜드를 비롯해 기업들의 입차수가 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총장로 2가의 경우 임대료가 3.3m당 평균 5000~6000만원 수준. 즉 66㎡(20평) 크기의 매장을 임대하려면 적어도 1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여기에 관리까지 포함하면 웬만한 기업이 아니거나 고서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결국 임대료 부담 등 자본이 부족한 개인 자영업자들은 총장로 메인 도로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5년 동안 총장로에서 점포를 운영했다가 3년째 쉬고 있는 김모씨는 “총장로에서 사실상 커피숍, 화장품 매장 등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거의 전멸했다”며 “생계를 위해 소규모로 장사를 했던 개인 자영업자가 자본을 앞세워 대형으로 운영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보해소주 '월(月)' 전속모델 한가인 발탁

“힐링·소통 이미지 적합”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영화 ‘건축학 개론’으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배우 한가인이 보해소주 ‘월(月)’의 모델이 됐다.

보해는 31일 ‘해를 품은 달’에서 왕의 역을 맡아 내는 무녀 월(한가인 분)의 치유와 위로의 이미지가 ‘월(月)’의 제품 콘셉트인 ‘힐링(Healing)’과 부합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학 개론’에서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닌 30대 여성의 심리를 잘 표현해 상대방과 솔한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인생사를 나눌 수 있는 소주가 갖는 소통의 이미지와도 맞아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보해는 한가인과 함께 ‘월(月)’의 힐링 캠페인’을 전개하고 ‘힐링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월(月)’은 주류업계 최초로 사망수수만 원료로 사용해 만든 소주로, 가볍고 상쾌한 맛만이 특징이다. 현재 전국 이마트 135개점에 입점돼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GS·금호산업 등 79개 건설사 상호평가 최우수

국토해양부는 올해 건설업 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47개 건설사가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업체 중 95점 이상의 최상위 점수는 GS건설·금호산업·롯데건설·현대건설이 받았고, 중소기업 중에는 세기건설 등 79개사가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우수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지자체 적격심사 및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로 구성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지난해에도 60점 이상을 받은 우수업체는 2672개로 올해와 비슷했다. 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남뉴스



안전한 일자리에 몰린 발걸음

지난 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공직박람회'에서 고등학생들이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직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54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美, 한국산 세탁기 보조금 덤핑판매 판정

광주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한국산 세탁기가 정 부로부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다는 미국 상무부의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 세탁기는 최고 71%에 달하는 보복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지난 30일(현지 시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제 소견과 관련, 한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으로 국제무역규를 위반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상무부가 고시한 상계관세율은 대우일렉이 70.58%로 가장 높다. 삼성전자는 1.20%, LG전자는 0.22%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가 연간 4억 5000달러(약 5000억원)에 달하는 등 이들 3개사의 수출 규모는 연 5억 6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무부는 이르면 올해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

정이며, 월품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상무부가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리더라도 미 국제무역 위원회(ITC)가 이를 인정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을 정부 보조금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 수출 규모 중 미국 수출은 1%에 불과해 파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고졸 20명 채용 특성화고 출신학생 대상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30일 광주 전남 소재 특성화고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쳐 2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전남 교육청에서 추천된 31개교 특성화고에서 뽑힌 인턴 사원 44명 가운데 정규직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

2012년도 상반기 고졸 신입행원

에 합격한 이들은 하계 방학기간 중(7월~8월)2개월 간 직무연수를 실시한 후 9월경 각 영업점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광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지난 2010년 4명의 고졸출신 행원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6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 20명을 채용해 지

역민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졸 행원들이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앞으로 채용을 늘려갈 계획이다”며 “광주은행의 고졸채용 확대가 고졸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22개업소 적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입 쇠고기를 한우 등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도내 음식점과 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은 5월 한 달간 도내 쇠고기 수입업체와 식육가공·판매업체, 음식점 등 2400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5개소·미표시 7개소 등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업소는 유통업체가 2개소, 음식점이 20개소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결과 원산지별 위반유형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한 사례가 31.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산→국산(한우) 거짓표시·미표시 27.3%(6건) ▲미국→국산 거짓표시·미표시 22.7%(5건) ▲뉴질랜드→국산 거짓표시 18.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T식품은 미국산 소갈비 292kg(580만원 상당)을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광주 남구 S음식점은 뉴질랜드산 쇠갈비로 조리한 갈비탕 600kg(6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주시 M음식점은 뉴질랜드산 쇠갈비로 조리한 갈비탕 1t(7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광주시 서구 Y한정식은 미국산 쇠갈비로 조리한 갈비찜 5kg(7만원 상당)을 한정식 메뉴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 |
|------------|-------------------|
| 코스피지수 | 1,843.47 (-1.39) |
| 코스닥지수 | 471.94 (+2.32) |
| 금리(국고채 3년) | 3.32% (-0.03) |
| 원·달러 환율 | 1,180.30원 (+4.00) |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ASEAN CULTURE & TOURISM FAIR 2012 아세안축제

ACTF ASEAN CULTURE & TOURISM FAIR

2012. 6. 6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홀 EXPO HALL INTERNATIONAL EXPOSITION YEosu

2012. 6. 9-10 디큐브시티 내 야외무대 신도림역 디큐브파크 D-CUBE PARK in D-CUBE CITY SHINDORIM, SEOUL

BRUNEI DARUSSALAM | CAMBODIA | INDONESIA | LAO PDR | MALAYSIA | MYANMAR | PHILIPPINES | SINGAPORE | THAILAND | VIETNAM

나는 한국인이야

KOREA PORK

대박나는 체인사업!!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서두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박사업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의 소자본으로 대박신화를 이룰수 있는 절호의 기회!!

- 가맹비, 로열티 일체없음
- 인테리어 비용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최소금액 최소비용으로

딱! 200만이면 OK!!

타지않고 완벽하게 빠른시간안에 구워지는 기발한 아이디어 숯불구이 전문점

기름기 많은 오리와 삼겹살을 타지 않게 숯불에 구워내는 초 대박 숯불구이 아이템!! 기름은 좌와 - 빠지고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어 부드럽고 고소한 숯불구이의 참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한달은?

품질좋은 국내산 돼지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100% 진짜갈비와 생삼겹만 취급하는 국내산전문점 입니다.

입어보십시오! 한돈으로 성공하실수 있습니다.

- 우리 고령에서 사육되는 순수 국내산 정통 돼지만 매일 작업하여 취급하므로 타업체와 원저가 비교 불가합니다.
- 본사에서 개발한 신개념 아이디어 숯불구이 기계는 원적외선이 사방에서 방출되어 2분만에 순간적으로 구워지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고 인건비 절감효과등이 탁월합니다.
- 타입중으로 전횡시에 발생하는 비용중 가장 큰 금액인 간판교체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므로 쉽게 업종전환을 하실 수 있으며 입주해서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하실 경우 최소, 최저의 비용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본사인 (주)사랑방유동은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외식 전문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체인점 관리와 물류를 책임집니다.

파격지원 간판교체비용 일체를 본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광주지역내 10개 점포에 한정

취급메뉴

- 돼지갈비숯불구이(국내산) 250g
- 생삼겹살숯불구이(국내산) 200g
- 갈매기살숯불구이(국내산) 200g
- 생 오 리숯불구이(국내산) 200g

점심특선

갈비정식 5,000원 냉면 4,000원

정량판매(1인분) 7,000원 포장판매 take out 5,500원

오치본점 24시간 영업중!

062-264-5343

체인점 문의

062-265-8900

직통

011-803-2612